

부처님께서 2600여년 전에 인도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현재의 도량에서 재현하는 영산재는 불교의식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장엄한 의식입니다.

불교가 한국에 수용, 전파되는 가운데 전개된 영산재는 불교문화를 뿌리에 두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져 가장한국스러운 불교예술로 완성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로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불교문화인 영산재, 여느 때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영산재를 통해서 G20의 성공개최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